

# 도교육청, 도내 학교 원격수업 권고

### 태풍 힌남노 피해 최소화... 학생안전관리지원단 상황실 운영·학교장 재량 수업 결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면서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4일 저녁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에는 확대간부회의, 기관장회의를 연달아 열어 태풍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태풍예비특보가 예상되는 5일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단축수업을 권고하

고 세부사항은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는 지리산 일대 남원, 순창 지역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6일에는 원격수업을 권고, 기상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반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태풍 소멸 시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주·야간 비상근무를 통해 재난상황 접수 및 긴급시

설 복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도 별도 대책반을 꾸려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했다.

특히 강한 비파와 폭우에 대비해 학교 및 교육기관의 침수 및 배수 불량, 비탈면을 수시 점검하는 등 태풍과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도록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일 태풍 '힌남노'에 대비해 현재 공사가 진

행 중인 학교 62개교의 현장을 긴급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는 태풍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상특보 모니터링·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 상황별 대응은 물론,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학교 및 교육기관의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학사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부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 “고소·고발전 멈춰 주십시오”

### 폭행의혹 관련 서거석·천호성 당시 후보 간 고소·고발에 전북대 이귀재 교수, “아이들 희망 위해 두손 잡아달라”



“우리 아이들의 희망과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고소 고발을 멈추고 두손을 잡아주세요.”

이귀재 교수(전북대학교)는 5일 도교육단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행 의혹과 관련한 당시 서거석 후보와 천호성 후보 간의 고소 고발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수는 지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의 질의 응답 과정은 생략한 채 자리를 떠 아쉬움이 컸다.

먼저, 현 서거석 교육감과 천호성 교수는 모두 교육자로서 인품과 자질을 갖춘 분들로 개인적으로는 서 교육감과는 친형같은 존재고 천 교수는 진동생처럼 아낀 다며 발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지난 교육감 선거 후보토론회 과정에서 제 기억에서 멀어져 있는 10년이 지난 ‘폭행 의혹’에 대한 사건으로 초점이 흐려진 데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려는 내용을 13조 보호자에 관한 내용에는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린 대변인은 “교원침해 사안 해결의 최종 도달점은 수업의 정상화여야 한다”면서, 교사에게 주체적 권한 부여, 관리자의 역할 및 권한 부여, 교사의 업무 및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보호책임과 권한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추진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한편, 이 교수는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 중 논란이 된 ‘동료 교수 폭행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법률적으로 사견하 할 만큼의 폭행이나 아니냐 부분에 대해 서 교육감과는 호형호제로 지내는 동료교수였다. 그 당시 교수 신분이 아닌 사적 만남으로 종종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 당시 맞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화 시킬 만큼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는 것.

두 번째로, 녹취록 내용으로 녹취 당사자가 진해해 폭행을 부각시켰던 이유를 인식하지 못한 채 동조해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녹취된 것도 몰랐고, 알고 난 후 녹취가 공개 될 거라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끝으로 선거기간 나왔던 자필확인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언론에서 회자된 내용이 진실을 넘어 많은 내용이 부풀려져 있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개인간 사소한 일로 전북 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기준을 삼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어른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예방·교육활동 보호 ‘앞장’

### 교권침해 예방 공청회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5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있는 교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참석,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다. 학교에서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충실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면서 “학생중심은 어디까지나 탄탄한 교권하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부의장은 “교권이 바로 서야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생의 인권 존중뿐만 아니라 교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5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발제는 한국교육진흥원 김동석 교권본부장이 맡았다. 김 본부장은 “교권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교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생활지도법 조속 마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활동 침해

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적극 대응 권고 △무고한 ‘이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고소·고발로부터 억울한 교원 보호 방안 마련 △시·도 교원치유센터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이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가 교권보호의 파수꾼으로 든든

한 지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북교육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전교조 전북본부 김재욱 전주초등지회장, 전북교사노조 장세린 대변인 등도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한 문제행동 학생을 제어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이라면서 “법령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욱 전주초등지회장은 “교육기본법 12조는 학생의 의무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따르려는 내용을 13조 보호자에 관한 내용에는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린 대변인은 “교원침해 사안 해결의 최종 도달점은 수업의 정상화여야 한다”면서, 교사에게 주체적 권한 부여, 관리자의 역할 및 권한 부여, 교사의 업무 및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보호책임과 권한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추진방향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 ‘강한 멘탈 기본·실무 영어 준비 철저’

###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해외 취업 선배들, 후배들 위한 실전 팁 보내와

싱가포르와 괌, 베트남에 있는 대형 호텔에 취업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선배들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실전 팁과 실무 경험담 등을 후배들에 보내며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취업 실전 팁을 통해 학생들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과 함께 실무에 필요한 영어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유명 여행지마다 관광객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호텔 근무자들은 경력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강한 정신력이 요구된다는 것.

리츠칼튼 밀레니아 싱가포르 호텔 F&B 홀로니에서 근무하는 조동진 학생은 “발과 생각이 전혀 다른 외국 고객들을 대할 때에는 무엇보다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실무 영어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괌 웨스틴 호텔 포퓰트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박성주 학생은 “투숙객이 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황하지 않고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정신력과 영어 대화 능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베트남 JW메리어트 하노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진대현 학생은 “외국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 수업과 학교 연계 현장 실습이 현장의 실무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리츠칼튼 밀레니아 싱가포르 F&B



고 조언했다.

베트남 JW메리어트 하노이 호텔에서 근무하는 진대현 학생은 “외국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 수업과 학교 연계 현장 실습이 현장의 실무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리츠칼튼 밀레니아 싱가포르 F&B

프로모션 매니저인 송다래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전주대 후배들은 영어와 호텔 업무에 관한 기본지식이 탄탄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 외국인 동료들의 평가도 아주 긍정적”이라며 “모두가 앞으로 최고의 호텔리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2022년 1학기에만 재학생과 졸업생 24명이 싱가포르와 괌, 사이판, 베트남 등 해외 유명 여행지의 대형 호텔에 취업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30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다.

심영국 학장은 “한 학과에서 330명의 해외 취업 성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의미가 있는 우리들의 자부심은 그동안 학생들을 보낸 호텔들이 전 세계에서 경력을 모두 인정해 주는 세계적인 호텔들로만 선발해서 보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대학원생 3명, 국립대 교수 임용

### 이상현 교수 연구실 ‘성파’

전북대학교는 이상현 교수(산림환경학과) 연구실에서 최근 5년간 3명의 대학원생이 거점국립대 교수로 임용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교수 연구실에서는 2017년에 경남과학기술대학 산림자원학과(현 경상국립대 산림환경과학부)를 시작으로, 2019년 전남대 산림자원학과, 그리고 올해 9월 경상국립대 산림환경과학부 교수에 임용됐다.

임용 교수들은 모두 전북대 학사 출신이며, 2명은 석·박사 학위도 전북대에서 받는 등 전북대 대학원



의 위상과 역량을 입증했다.

이상현 교수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20년 전부터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영어 논문 쓰기를 연구실에 도입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모든 대학원생들을 해외 학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 목적의 해외 출장에도 학생들을 동반해 국제적 교류를 통한 연구자의 눈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교육기부 모델학교 운영

### 전라·제주권 8개교 선정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는 2022년 교육기부 사업 중 하나인 ‘모델학교’에 전라·제주권 8개교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기부 모델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자원을 초·중등 교육활동에 활용해 단위학교의 우수사례를 창

출하고, 선순환적 교육기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기부 모델학교 선정된 곳은 전북에서 전라중학교와 삼천초등학교, 고창 부안초등학교, 광주 조산대여자중학교, 신수초등학교, 전남 관산초등학교, 안좌초등학교, 제주 백록초등학교 등이다. 교육기부 모델학교에 대한 수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이재웅·최우일 대학원생 연구, 국제학회서 ‘우수’

### 방부제 활용 파리넨 선택적 제거 가능한 생물 소재 연구 등

전북대학교 이재웅·최우일 대학원생(화학공학부 박사과정·지도교수 민지호)이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Pharmacology and Toxicology 국제 심포지엄에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재웅 대학원생은 화합물이나 의약품 내 방부제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파리넨 물질에 특이

적으로 결합하는 펩타이드 서열을 선별한 것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파리넨 없는 생활용품들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파리넨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생물 소재를 개발한 이 결과는 환경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Environmental Pollution’에 게재됐다.

또한 최우일 대학원생은 효모에서

분리된 역포소재의 약물전달체로서의 가능성 확인과 그 후 전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역포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연구 내용의 일부는 최근에 관련분야 국제저명학술지인 Artificial Cells, Nanomedicine and Biotechnology에 게재됐다.

이들은 발표현장에서 연구논문의 중요성, 이론적 기여, 독창성 및 적절한 방법론 등 세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육문화회관, 9월 독서의 달 맞아 11개 행사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기후위기시대, 지혜로운 독서생활’이라는 주제로 전시 4개, 강연 1개, 체험 6개로 구성된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그림책 ‘콩콩이파트’ 아트프린트 전시, △국립과학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조들의 지혜를 엿보는 자음의 전시, △사서가 추천하는 생애주기별 도서, △테마도서전 보존서고 속 보물찾기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기후위기시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이병승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차일드플 : 지구를 살리는 방법 강연을 비롯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없는 고체샴푸 만들기,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며 미적으로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보자기 공예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교육문화회관 누리집(lib.jeju.go.kr)이나 독서교육과(20-1688)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